

충북도, 초광역형 관광교통 혁신 선도지구 공모사업 선정

관광객수 오천만 달성을 위한 교통기반 마련

충청북도는 지난 18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초광역형 관광교통 혁신 선도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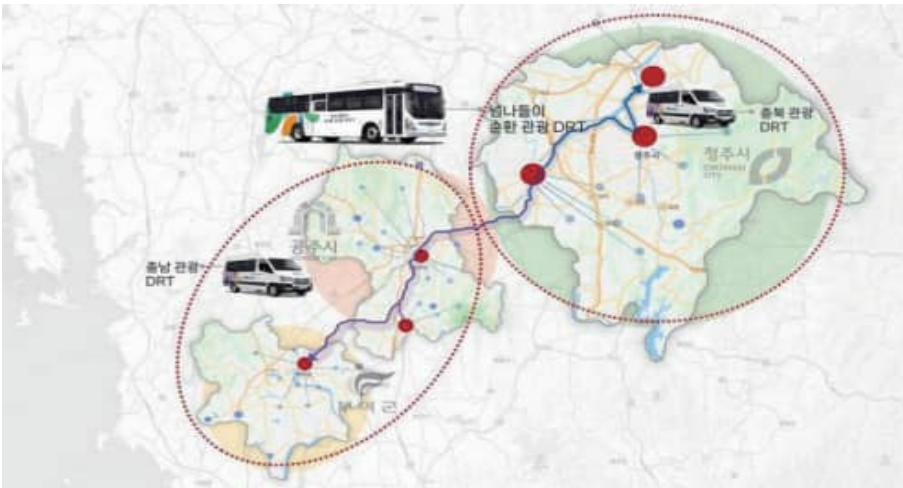
‘초광역형 관광교통 혁신 선도지구 공모사업’은 교통거점과 지역 관광지 간 광역 연계 교통망을 확충하고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결합하여 관광객의 유입 증대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충청북도와 충청남도가 지역 RTO(Regional Tourism Organization)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국비 25억 원 지방비 25억 원 등 총 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공모사업을 통해 충북과 충남 지역 내 교통거점인 청주국제공항, KTX오송역, KTX공주역과 대표 관광지인 청남대, 백제역사지구에 관광 수요응답형 광역교통 수단인 DRT(Demand Responsive Transit)가 도입된다.

충북·충남 양도의 관광객 이동 현황을 분석하여 DRT에 대한 수요 데이터를 산출하고 최적의 관광노선을 구축한 뒤 시범운영을 통해 관광객이 만족할 수 있는 관광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광역 교통체계 확충을 통해서 도내 관광객의 체류시간 증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주국제공항과 KTX오송역을 통한 관광객 유입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 초광역형 관광교통 노선도

장인수 충북도 관광과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충북의 관광교통 인프라를 확충하여 청남대 등 매력적인 관광지로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충북 관광객 5,000만 명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규국 기자

한글문화도시 세종, 조례 속 한자어·외래어 정비

관련 조례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4월 공포 시행

세종특별자치시가 조례 속 한자어와 외래어를 우리말로 정비한다. 시는 19일 ‘한자어·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세종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법제처와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세종시를 한글 조례 특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먼저 문화·체육, 복지 분야 21개 조례 속 한자어·외래어·일본식 표기 등을 바꾸고 순차적으로 시의 주요 조례를 꾸준히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한자어인 ‘동일한’은 ‘같은’으로, ‘분할’은 ‘나누어’ 등의 표현으로 정비된다. 또 외래어인 ‘홈페이지’는 ‘누리집’, ‘팸투어’는 ‘초청

홍보여행’으로, 일본식 표현인 ‘요하는’은 ‘필요한’으로 바뀐다.

조례 속 단어 등이 우리말로 정비되면서 시민들이 조례를 더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안은 내달 중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조례 이외에도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정비로 시민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순종근 법무혁신담당관은 “세종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글문화도시인 만큼 전국 최고 수준의 한글 조례를 만들고, 이를 통해 시민 모두가 조례를 쉽게 이해하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준 기자

태안군, 반려동물 동반 여행객에게 10만 원 지원

3~6월 ‘펫나스 미션투어’ 상품 출시, 1차여행 4월 18일까지 신청·접수

충남 태안군이 ‘2025년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특별한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

군은 3월부터 6월까지 태안을 찾는 반려동물 동반 여행객 총 200팀을 대상으로 주요 관광지 방문 시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펫나스(Pet+Wellness) 태안 미션투어’를 진행하기로 하고 3월 21일부터 4월 18일까지 1차 여행(3월 23일~4월 28일)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반려견과 함께 태안을 여행하면서 반려동물 동반 관광지·숙소·카페 등을 방문한 뒤 인증하면 팀당 최대 10만 원(1박 2일 기준)을 돌려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타 지역에서 태안을 1박 2일 이상 방문하는 여행객 중 사진 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반려동물 동반 가능 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 △반려동물 동반 가능



▲ 반려동물과 함께 태안 여행을 즐기는 관광객들 모습

숙소 및 카페, 체험공간 등 2개소 이상 방문 △방문·체험 인증사진 및 후기글 SNS 공유 등 3개 미션을 수행하면 된다.

여행 완료 후 7일 이내에 SNS에 업로드하고 경비 신청 증빙서류(신분증 및 통장 사본, 이용 영수증, SNS 주소)를 제출하면

미션비를 받을 수 있으며, SNS 업로드 시 팀원 전원과 반려동물이 함께 나온 사진 2장 이상이 포함되어 한다.

단, 1박 2일 여행 시 숙박일이 토요일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출액 중 숙박비는 최대 8만 원까지 인정되고 주류 및 가전제품 등 구입비용은 환급되지 않는다.

우선 3~4월 여행객을 대상으로 1차 신청을 받으며, 신청을 원하는 반려인은 4월 18일까지 펫나스태안 홈페이지(https://petnesstaean.kr) 또는 ‘한달살러’ 홈페이지(https://www.monthlier.kr)에서 상세내역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1차 여행 신청 기간에 200팀 접수가 마감될 경우 2차 여행(6월)은 진행되지 않는다. 접수 시 참가신청 확인 및 선정 후 개별연락이 진행되며 경비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반려동물 동반 신규·재방문 여행객을 유치하고자 이번 미션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다”며 “아름다운 꽃과 바다의 도시 태안에서 반려동물과 행복한 추억을 쌓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필 기자

AI와 K-POP의 만남! 서천군, ‘갯을병정’ 뮤직비디오 ‘화제’

AI 비트에 청렴을 담다! 서천군 혁신적 청렴송 뜨거운 반응

서천군이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혁신적인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서천군은 ‘청렴서천’ 구현을 위해, 직원들이 직접 참여한 청렴송 ‘갯을병정’ 뮤직비디오를 제작·배포하며 색다른 홍보 방식을 선보였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존의 청렴 홍보를 넘어 음악과 영상을 활용한 창의적 접근법을 도입해 공식사회 내 청렴 의식을 효과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청렴송 ‘갯을병정’은 직장 내 갑질과 을질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부당한 권력 남

용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병을 얻고, 가해자는 정직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곡의 가사는 60갑자의 첫 글자인 ‘갯을병정무기경신임계’를 활용해, 갑질...을 질 행위와 발음이 유사한 요소를 접목해 직원들이 창의적으로 직접 만들었다.

여기에 AI 기술을 활용해서 작곡을 하고 음성을 입혀 노래를 완성했다.

이번 청렴송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AI 기술을 활용해 작곡과 보컬을 완성했다는 점이다.

직원들이 직접 만든 가사에 AI가 작곡

과 편곡을 더해 대중적인 멜로디를 입혔으며, K-POP 스타일의 진숙하고 중독성 강한 곡으로 탄생했다.

이에 대해 내부 직원들은 “노래가 귀에 쏙쏙 들어온다”, “진심이 담긴 가사가 인상적이다”, “음원이 너무 좋아서 계속 듣게 된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큰 호응을 나타냈다.

군은 청렴송 가사에 맞춰 직원들이 직접 출연하고 연기한 뮤직비디오도 제작했다.

특히, 홍보팀 직원들이 영상 콘티 기획부터 드론을 활용한 항공 촬영, 편집까지

모든 과정을 담당하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완성도 높은 홍보 콘텐츠를 만들어 냈다.

이는 청렴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자연스럽게 공감하며, 청렴 문화 정착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제작된 청렴송과 뮤직비디오는 서천군 공식 유튜브 채널 ‘요즘서천’을 통해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또한, 포스터에 삽입된 QR코드를 통해 디지털 싱글 앨범과 포스터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창희 홍보감사담당관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청렴 문화 확산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창의적인 방식으로 군민과 소통하며 ‘청렴서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임종복 기자

괴산군, 지역현안 방향성을 모색하다

군정자문단 회의 개최



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한)은 2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정자문단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 주요 성과를 점검하며 2025년 군정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신규위원 9명을 포함한 총 30여 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주요 정책 제안으로는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개발, 모든 세대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조성 및 집적화, 공모사업을 통한 예산 절감 방안 등이 논의됐다.

자문위원들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괴산군만의 특색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군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실효성 높은 정책을 주문했다.

특히, 중앙부처의 사업 트렌드에 맞춰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송인한 군수는 “군정자문위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괴산군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군정 발전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재경 자문단장은 “정책 자문이 단순한 회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방안을 도출해 정책 실행력을 높일 것”이라며, “군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규국 기자

증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나를 찾아 떠나는 심리여행 시간

증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윤은미)가 지난 19~20일 이틀간 방과후아카데미 4~5학년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집단심리검사를 진행했다.

이번 검사는 청소년들이 겪는 불안, 우울,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견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통합지원 연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검사는 청소년의 특성 및 심리상태를 고려해 U&I(학습유형검사), KIPR(교우관계검사), 행복지수 검사 등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학습 방식과 대인관계 특성을 분석하고, 심리적 안정과 성장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도울 계획이다.

윤은미센터장은 “집단 심리검사를 통



해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불안 및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필요 시 개인상담을 연계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청소년상담과 지원서비스는 증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전화(☎043-835-4189) 또는 홈페이지(www.jp1388.or.kr)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이병중 기자

계룡시, 제1·2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상생발전 나서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계룡시 기업(氣-UP)간담회’ 개최

계룡시는 지난 17일 계룡제2산업단지에 위치한 ㈜자우버에서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함께 그리는 계룡시 기업(氣-UP)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제52회 상공의 날을 맞아 계룡제1·2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을 운영하며 겪는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계룡시와 기업이 함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계룡시 친환경 대표 화학기업 ㈜자우버 현장시찰을 시작으로 상공의 날 기념 상공인 응원 영상 시청, 이음우시장의 기업지원 주요사업 소개, 기업인과의 대화 순서로 진행됐다.

기업인과의 대화 시간에는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비롯해 입주기업 활성화 방안, 계룡시에 바라는 점 등 격의 없는 대화가 오갔다.

특히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관·軍 상생협약 ▲산단지역 주차공간 부족 및 확보방안 ▲기업지원기관 신설 제안 등 활발한 기업 활동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다.

이음우 시장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인과의 대화를 통해 현재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 및 어려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게됐다”며, “제안된 주신 의견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진여부를 결정하고 추진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대체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업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민준 기자